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TV내 삼성디스플레이 패널 비중 감소 의미

2013. 5. 21

디스플레이
Analyst 전병기
02.3779-8425
bkjeon@etrade.co.kr

삼성전자의 LCD TV, 삼성디스플레이 패널 비중 낮아지고 있어

2012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TV내 패널 공급 점유율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LG디스플레이 패널 비중을 늘린 LG전자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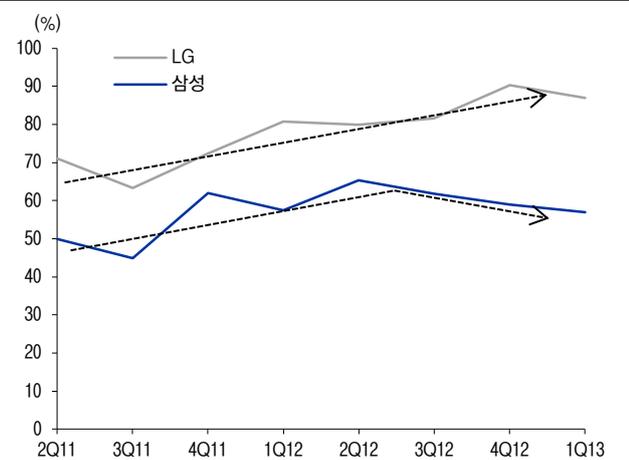
삼성과 LG의 계열사 패널 비중 추이

글로벌 TV시장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로부터 LCD 패널을 가장 많이 공급받고 있다. (전통의 라이벌인 두 회사는 상대방 패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삼성과 LG는 패널-세트 수직계열화를 통해 공급-수요 조절이 상당부분 가능하다. 2011년 LCD 업황이 안 좋을 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계열사 패널 비중을 늘리며 각각 삼성디스플레이('11년 당시 삼성전자 LCD사업부)와 LG디스플레이의 실적을 이끌어 주었다. 하지만 LCD 업황이 회복된 '12년 하반기부터 삼성과 LG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LG전자는 LG디스플레이 패널 비중을 유지하거나 더 늘린 반면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 패널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LCD에서 OLED로 투자 비중 옮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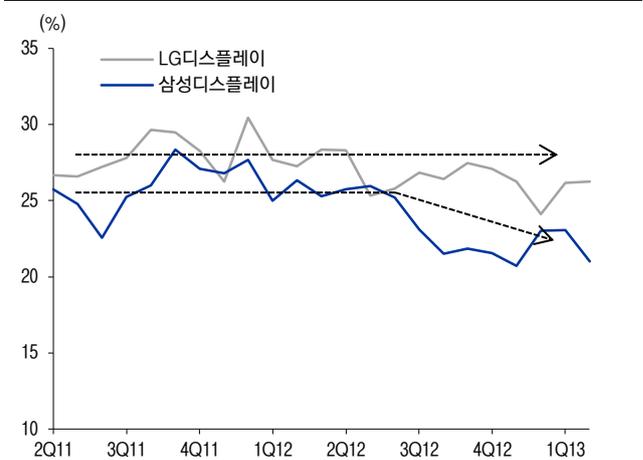
삼성전자는 올해 3월 샤프 지분 3%를 104억엔(약 1,200억원)에 인수했다. 유일하게 10세대 라인을 가진 샤프를 통해 60인치 이상의 대형 패널을 원활하게 공급 받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된다. 샤프는 대형 패널뿐만 아니라 노트북 등 중·소형 패널도 삼성전자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의존도를 낮추고, 삼성디스플레이는 투자비중을 LCD에서 OLED로 옮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점점 떨어지는 LCD 패널 시장 점유율의 돌파구로 OLED 디스플레이로의 전환을 위해 투자를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패널 업체들의 OLED 투자는 필연적이며, 이로 인한 OLED 장비/소재주들의 수혜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1]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각 계열사 LCD TV패널 비중 추이



자료: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글로벌 LCD TV 패널 점유율 추이 (면적기준)



자료: DisplayBank,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병기)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